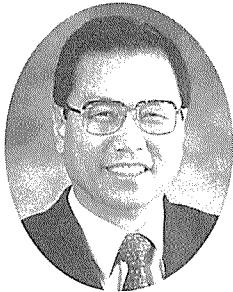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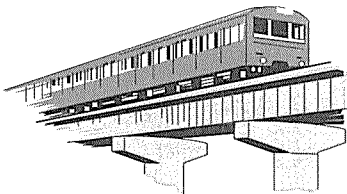


평양에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손기철

〈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팀 상무 〉



김 대중 대통령내외분과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던날, 지난 6월 13일 아침은 7천만 민족의 감격이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환하던 날까지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가 밝은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처음 열린 평양시가지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그 곳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그 곳의 모란봉과 대동강은 어린시절의 놀이터였기에 감회 또한 남다른 느낌이었다. 평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무의식속에 간직한채 반세기를 살아 왔기 때문이다.

그 모양이 마치 모란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모란봉을 휘감으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그리고 서쪽 들녘의 보통강 변에는 아직 그 시절 그 때의 소년이 뛰어 놀던 발자취와 땀새가 묻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다.

여기에서 오늘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축배를 들며 활짝 웃으며 민족의 앞날을 가늠하고 있는 사실이 꿈만 같다.

평양시가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반세기를 뛰어넘은 긴 시공(時空)과 아득한 어린시절을 애써 더듬어 보지만, 망각의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러한 망각의 아픔과 그리움이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반추하게 된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 산책길 따라 나섰던 그 을밀대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모란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모란봉 골짜기에 잔설이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울긋불긋 진달래꽃이 피어나고, 나뭇가지에 파란 물이 오를때면 을밀대에도 소년의 가슴에도 봄기운이 녹아 들었다.

깎아 지른듯 골짜기에서부터 높이 쌓아 올린 돌축대 위에 옛 성곽을 끼고 을밀대는 우뚝 서 있다. 을밀대에 올라서면 낙낙장송 사이로 평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 온다.

여름철에는 헤엄을 쳤고, 겨울에는 썰매와 스케이트 지치던 대동강의 옛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평양냉면 전문 음식점 옥류관이 강변의 명물로 소개되고 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창건한 이래 우리 민족과 더불어 왕도로서 면면히 이어온 고도 평양은 명승고적이 많아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동강변에 서 있는 대동문은 역시 평양의 관문이다.
대동문 옆으로 강변 언덕위의 연광정은 임진왜란 당시 명기 계월향이 일본장수를 유인하여 김응서 장군으로 하여금 머리를 베게한후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한 곳으로 유명하다.

대동문 서편으로 흘러 내리는 보통강변에는 보통문이 있다. 그리고 대동문과 보통문 중간지점에 단군왕검과 기자를 제사 지내는 승령전과 승인전이 있다.

만수대를 넘어서면 평양 6문의 하나인 칠성문이 있고, 여기서 언덕을 따라 오르면 사허정과 을밀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모란대, 현무문, 영명사와 유명한 부벽루가 모란봉의 울창한 수림 사이 사이로 아름다운 용태를 자랑한다.

대동강의 맑고 푸른 물결 너머로 수양버들이 연기처럼 서려있는 능라도와 반월도는 역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명승지임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철모르던 시절 어린 마음속 깊이 각인된 그 산천은 아직까지 뜨겁게 내 가슴속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다.

그 고향의 편린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찾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고향이 자리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고향의 형태와 색채는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시절 그 고향의 형태와 색채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생활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반세기에 걸친 긴 세월의 단절 속에서 그동안 산천은 수없이 바뀌어도 그 곳이 내 고향임에는 틀림없다.

추석절이나 설날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이 오면 고속도로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치를 만큼 북적이고, 고향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의 들뜬 표정이 나에게서는 커다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득한 어린시절의 향수를 달래면서 표정은 희열에 넘쳐 있다.

더군다나 늘 바쁜 일상생활에 매달려서 심신이 피곤한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가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고향을 향하는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배어 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만 내키면 고향으로 가는 기차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복에 고향을 둔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찾을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손바닥보다도 작은 나라이다. 이 작은 땅덩어리가 반쪽으로 두동강나서 무려 반세기가 넘어서도록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대륙과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음을 볼 때, 휴전선의 장벽도 허물어질 날이 오지 않겠는가.

얼어 붙었던 북방에 따스한 햇볕이 스며들고 있다. 또 이렇게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에게는 언제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설레임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이른바 1·4후퇴 당시 나는 부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사를 결하며 옷을 벗고 대동강 물에 뛰어들어서 강을 건넜다. 배고픔과 강추위에 떨며 밤낮으로 하염없이 남쪽으로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떠난 고향을 지금 회상하는 것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던가? 여우도 죽을때는 머리를 자신이 살고 있던 굴을 향한다고 하는데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니 지금 이 시각에는 그저 그리움이 짙게 묻어나는 글을 쓰고 싶을 따름이다.

남과 북의 골이 엄청나게 깊이 파였어도 우리는 뿌리가 같은 배달민족이기에 그렇게 만나고, 언젠가는 반드시 서로 만져보고, 서로를 확인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될 통일의 그날이 오지 않겠는가.

고향은 있으나 갈 수 없는 곳이란 망향의 한을 속시원히 풀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500리 밖에 안되는 지척의 그 길을 기차로, 승용차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날은 언제일까. ☺